

광주지역 정책발굴 '골몰'

경기도의회 정책추진단 광주시와 정책발굴 나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의원과 정윤경(민주, 군포1) 의원은 17일 지역 도의원과 광주시·양평군에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17일 오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시와의 정담회에서는 '주제공원 조성, 분동에 따른 신규 동 청사건립, 문화예술 특화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경안시장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의회와 시·군의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두 의원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민의 생활권 안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특색 있고 새로운 형식의 주제공원 조성을 요청했고 임창휘 의원은 "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및 노후 시설 관리로 경안시장 등 구도심 상권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과 정윤경 의원은 17일 지역 도의원과 광주시·양평군에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을 활성화해달라"며 고물가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오창준 의원은 "교통혼잡·사고를 예방하고 광주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초월·오포·광남 외곽순환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복직 사각지대 청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족돌봄 청년의 현황 파악 및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윤경 단장은 "지역별 주민종합복지 시설 건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태화산 둘레길 사업 추진 등 국도비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광주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광주

시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원들과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월 중 안성시·오산시·포천시·광주시·양평군의 정담회를 추진했으며,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인천시 기금관리의 구체적 틀 마련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행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부터 입법예고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중삼 기자

평택시 버스노선 개편 재고 요청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승혁(공도·양성·원곡) 안성시의원은 17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김산수 의원을 만나 공도·원곡·양성을 경유해 평택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유지 해줄 것을 건의했다. 평택시는 오는 7월부터 안성 구간 배차를 단축하고 평택 구간 배차를 연장 및 증차하는 버스노선 지·간선 체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양성터미널~원곡~평택 노선, 공도 중북리~진사리 노선, 공도 불당리·웅교리~국도38호선 등 5개의 노선이 단축된다. 노선 단축이 실시되면 공도·원곡·양성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돼 노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혁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이 17일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사진=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시 서부권(공도·원곡·양성)은 평택시 생활권으로 분류돼 버스 노선 개편 시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등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노선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승영 평택시장은 "아웃동네인 안성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채중철 기자

"잘못된 행정은 즉시 인정하고 보완해야"

인천 서구의회 조사특위

인천 서구의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담당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근거로 구가 위법한 해촉을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당 위원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

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담당 국장은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불편을 드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송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답했다.

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은 "구 행정의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잘못이 발생했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발전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화성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 돌입

제221회 임시회 개최 예결 특위 의원 선임

화성시의회가 19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공무원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각 상임위에 관한 예산안을 회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배현경·박진섭·위영란·공영애·전성균·김미영·이계철·김산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6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행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69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463억원 증가된 규모로 고물가·고금리·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정에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재원을 재조정하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

의 조례안인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2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현황장

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0일만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 시정 현안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승수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 성공 추진

용인시의회 성명서 채택 정부에 협력 요구서 송부

용인시의회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용인시 납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

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해 배후도시는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해 줄것을 요구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묘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

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하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용인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 우선 사용과 지역 농산물, 지역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도 요구했다.

또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토지의 합리적인 보상 대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류근상 기자


www.1gan.co.kr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스체크

일간경기 모바일앱









진짜
간편하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창에 일간경기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